과기부, 나노기술 전문위원 24명 임명

정부는 나노분야 연구개발이 범부처적으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NT관련 주요 정책 및 관련계획을 수립·조정하고 민간 및 정부간 역할분담을 조정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나노기술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12월19일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나노기술전문위원회」는 7월 제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설치·운영키로 반영된 바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게 됐다.

「나노기술전문위원회」는 과학기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6개 관계부처 1급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24인으로 구성됐다.

나노기술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비고
위원장		유희열	과학기술부 차관	
당연직 위원 (6명)		고재방	교육부 차관보	
		최석식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	
		이석영	산업자원부 차관보	
		변재일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강윤구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위촉직 위원 (16명)	산업계 5명	이제호	삼성서울병원 임상의학 연구소	
		박영진	하이닉스반도체 신소자담당 기술고문	
		신미남	(주)Fuel cell power 사장	여성
		정선휘	삼성종합기술원 부사장(CRO)	
		김성태	LG 전자기술원 상무	
	학계 6명	국 양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황정남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기문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교수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교수	
		최덕균	한양대 세라믹공학과 교수	
		최진호	서울대 화학과 교수	
	연구계 5명	김희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재료연구부장	
		김병기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부장	
		박경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조원	테라급나노기술개발 사업단장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여성
간 사		정 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국장	
		김학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기단장	

과기부는 「나노기술전문위원회」가 설치·운영됨으로써 앞으로 나노기술 관련 부처별 정책 및 사업을 검토·조정하고, 수시로 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유희열 과학기술부 차관은 위촉장을 수여한 후 민간위원들과 간담회에서 국가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 및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나노기술전문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20>